SK-Sinopec, 인적 교류 넘어…

SK와 중국 최대의 에너지·화학기업인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SINOPEC)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K에 따르면, Sinopec의 에너지 판매 자회사 임직원 13명은 12월16일 SK를 방문해 한국 석유시장 현황과 도·소매시장 관리체계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일선 주유소 현장도 견학했다.

SK와 Sinopec은 오랜 기간 수출 및 수입 거래를 해오면서 11월 SK와 Sinopec의 자회사가 합작으로 상하이(上海)에 친환경 용제(Solvent) 생산·마케팅 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6월에는 중국기업연합회 陳錦華 회장 등과 함께 내한한 Sinopec의 王基銘 총재가 SK 본사와 울산공장을 방문해 최태원 SK 회장과 미팅을 갖고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양측은 매월 분야별로 한차례 정도 상대방을 방문해 석유시장과 원유 도입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Sinopec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아·태지역 에너지·화학 신 메이저로 도약하는 글로벌 성장계획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4/12/20>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